

기상사랑 3

2018. March

www.kma.go.kr **Vol. 441**

세계 기상의 날 특집
미래의 위험기상,
스마트한 기후대응으로 대비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기상지원 예보관 후기

날씨 + 스토리
캄보디아, 때때로 스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고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요*



-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 ⊕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 ⊗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하늘사랑

2018 March Vol. 441

2018년 3월호(통권 441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3월 12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 세계 기상의 날 메시지
미래의 위험기상, 스마트한 기후대응으로 대비 · 02
- 포커스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예보관 후기 · 06
성화, 모두를 빛나게 한 불꽃과 열정 · 08
동계올림픽 기상관측 자원봉사 후기 · 10
- 해외동향
면역력 떨어진 봄철, 자가면역질환 주의해야 · 12
식물 뿌리의 놀라운 전략 · 13

KMA About

- 열린마당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함께 해요 · 14
국제협력을 통한 위성기상 기술력 향상 · 16
꿈에서도 일기도가 보여요 · 18
끝난 사람 · 20

KMA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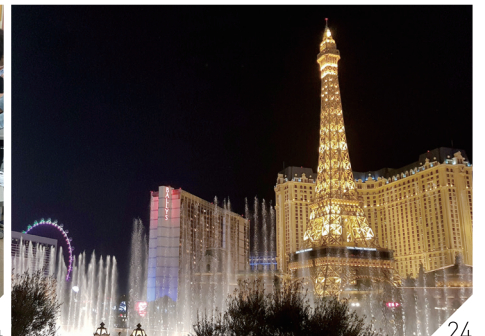
- 날씨 + Book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과
함께 한 엄마의 일기 · 22
- 날씨 + 여행 15시간의 비행시간을 잊게 한 칸쿤과 라스베
이거스 여행 · 24
- 날씨 + Story 캄보디아, 때때로 스콜 · 26

KMA Report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8
-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스케치 · 29
- 독자 마당 · 30



March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미래의 위험기상, 스마트한 기후대응으로 대비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트리 탈라스
Secretary-General
Petteri Taalas

2018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는 ‘날씨에 대한 준비, 스마트한 기후대응(Weather-ready, climate-smart)’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명한 물 사용(Water-wise)’이란 슬로건을 추가하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의 기본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날씨, 기후, 물은 인간의 안녕과 건강 및 식량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 폭우, 폭염, 가뭄, 겨울폭풍, 영하의 날씨와 같은 위험기상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생명과 생계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위험기상의 강도와 빈도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험기상

극한기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생계가 무너졌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은 허리케인 시즌 사상 최대의 피해를 보았고,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홍수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가난과 이주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에서 2년 연속 '환경'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 위험에는 극한기상, 생물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주요 자연재해, 인간이 만든 환경재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실패 등이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도 극한기상 현상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2017년은 관측 사상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였으며, 동시에 엘니뇨 현상 없이 가장 더웠던 해였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장기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많은 극한기상과 워터 쇼크(water shock)를 동반하면서 미래의 지구 온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와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

저는 모든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들이 날씨에 대비하고(weather-ready), 기후에 스마트하게 대응하며(climate-smart),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길(water-wise) 바랍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재해위험감소,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국제적인 의제 지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과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극한기상 및 기후, 물 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기상기구는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구로서,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체크 리스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각국 기상청(NMHSs)은 초단기 예보(nowcasting)와 계절 내 및 계절 예측, 장기 기후예측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상 현상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개인과 지역 사회,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정책 결정자 등 모두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한 기상과 기후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첫 걸음은 견고한 관측망 구축입니다. 육지와 대기,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관측망은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 예보와 조기경보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관측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후 서비스 개발에 대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시작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에 대한 사회 회복력은 예보 과학과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일기예보와 경보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재난관리 당국과의 협력이 개선됨으로써, 위험 기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30년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5일 예보는 수치예보의 발달 덕분에 20년 전의 2일 예보만큼 정확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계속 진행 중이며 조기경보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는 재난위험 경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경보는 인명손실을 방지하고 자연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더욱 효과적인 위험 경감에 위해서 다양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과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위험에 대한 대중 교육 및 인식을 제고하며, 위험에 대한 메시지 및 경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험 재난에 대한 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WMO는 각국 기상청(NMHSs)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된 다중재해 경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하여

WMO는 기상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기후 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CREWS, Climate Risk and Early Weather system) 뿐만 아니라 전 지구 기후서비스체계(GFCS)에서도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문 서비스도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MO는 ‘수문 서비스를 통한 번영(Prosperity Through Hydrological Services)’을 주제로 5월에 열리는 국제 물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씨 · 기후 · 물에 대한 사회 회복력 증진을 위해 관측망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예보와 다중재해 경보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WMO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 2030 의제와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이행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국가가 ‘날씨에 대비하고, 기후에 스마트하게 대응하며, 물을 현명하게 사용(weather-ready, climate-smart and water-wise)’하길 바랍니다. 모든 WMO 회원국과 WMO와 관련된 이들이 뜻깊은 ‘세계 물의 날(3월 22일)’과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 PyeongChang 2018™

기상지원 예보관 후기



수치자료응용과 김남원

2012년,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보관에 지원했다. 그렇지만 내가 올림픽 예보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정을 제외하면, 과연 2018년이 올까 싶을 정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너무나 멀고 막연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2018년 1월, 올림픽 예보관 파견 인사 문서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니 그제야 올림픽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설레는 시작, 올림픽 예보관

올림픽 예보관은 WFC(Weather Forecast Center)와 WIC(Weather Information Center)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WFC 예보관은 조직위 건물에서 각 경기장(베뉴)별로 예보를 생산하고, WIC 예보관은 각 경기장에서 경기운영 FA매니저(각 해당부서 관리자)와 참가국 TCM(Team Captains Meeting)에서 예보 전달 및 상담을 하게 된다. 이들은 40여 명의 기상청 파견 예보관과 기상 전문 자원봉사자 30여 명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 1일, 올림픽 유니폼과 AD카드를 받은 후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숙소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 짐을 풀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보관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내가 소속된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는 모글(Moguls), 에어리얼(Aerials), 크로스(Cross), 할프파이프(Halfpipe), 평행대회전(Parall Giant Slalom), 슬로프스타일(Slopestyle) 6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나는 윤기한, 공상민 WIC예보관과 송태호, 공윤구, 김기은 기상 전문 자원봉사자와 함께 기상정보를 지원하게 되었다.

정확한 예보는 철저한 준비로부터!

2월 2일부터 경기종목별로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지형에 따른 바람의 영향을 조사했다. 동시에, 수치모델과 경기장에 설치된 관측장비들과 자료를 비교하고 베뉴 매니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기 시작 전에 조사해야 할 내용을 점검 및 숙지했다. 경기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예보 시작을 준비하였고, 기상 전문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상 관측방법(시정, 하늘 상태, 설면 온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2월 5일, 모글경기 첫 TCM을 시작으로 경기종목별로 훈련 및 경기시각의 하늘상태, 기온, 시정, 풍향, 풍속, 적설을 참가국 관리자에게 직접 예보브리핑을 하였다. 휘닉스는 경기가 많아서 많을때는 하루에 3번의 공식 TCM일정에 긴급 TCM까지 많은 회의에서 예보브리핑을 하였다. 모두 날씨 예보에 관심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바람세기, 특히 순간최대풍속(Gust)에 관심이 많았다. 일중 바람변화에 따라 오후에 바람이 강하면 오전에 하는 등 기상상황에 따른 예보 연습도 시작했다.



신뢰 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정보

첫 위기는 개막식 다음 날 찾아왔다. 슬로프 스타일 남자 예선이 있는 10일 아침에 눈 예보가 3~6cm로 나갔으나, 예상보다 2cm 정도 적게 내린 것이다. 예보보다 실제 적설이 약하게 내리자, 예보관들은 새벽부터 경기운영 매니저를 찾아가 눈이 더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했다. 아울러, 현장에 나가 날씨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기상지원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 덕분에 경기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16일에는 낮에 구름이 조금, 에어리얼 여자 결선 시간인 21시에는 눈이 날린다는 예보를 11시에 전달했다. 참가국 및 경기 감독은 이 좋은 날씨에 눈이 오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실제 20시 40분부터 21시 50분까지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TCM에서 국제빙상연맹(ISU)에서 파견 나온 경기 감독 Joe가 실제로 21시에 눈이 날려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며 정말 기상지원을 잘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때 이후로 'Scientific Weather Forecaster'라는 TCM 예보 브리핑 시에 호명을 해주었다. 호주 등 각국 경기 매니저들은, 외국 담당자들이 날씨를 참고할 때 주로 이용하는 'SNOW- FORECAST' 홈페이지보다 올림픽 예보관의 예보가 더 잘 맞는다고 아침마다 경기장 예보자료를 받아 가는 등 우리를 신뢰했다. 특히, 경기 감독과 IOC 담당자 회의에서는 올림픽 예보관의 예보가 95%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며, 우리 예보를 믿고 23일 경기 일정을 미루었다.

올림픽 예보관을 마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보관은 2월 1일부터 25일까지 바쁜 기상지원 일정 속에서도 세계 최고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객과 함께 현장에서 지켜보고 환호할 수 있었다.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해 올림픽 예보관이라는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았다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파견된 우리를 대신해서 업무를 맡아준 직원들과 설에도 가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준 아내에게 고맙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올림픽 예보관의 소임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다.

성화, 모두를 빛나게 한 불꽃과 열정



강원지방기상청 이정선

2018년 2월 9일, 김연아의 우아한 스케이팅으로 성화가 화려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성화를 들고 이어달리기를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던 성화 봉송이 나에게도 가까운 일이 된 것은, 옆자리에 근무하고 계신 최은경 주무관님이 성화 봉송 주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였다.



101일간의 뜨거운 성화 릴레이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성화 봉송 주자를 언제 신청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은경 주무관님이 작년 5월에 성화 봉송 주자를 신청해 당첨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가 평생의 소원이라고 적은 신청 문구가 도움이 되었나 봐요”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는 걸 보며, 나는 인터넷으로 성화 구간을 검색해 보았다. 성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지 궁금해 알아보니, 그리스에서 점화된 성화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2018km의 거리를 101일간 7천 5백 명의 주자에 의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까지 달려간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다가오는 성화 봉송일

최 주무관님이 2월 6일에 성화를 들고 동해에서 달려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때부터 강원도에 들어오는 성화를 위해 특별기상지원을 계획하고, 성화가 지나가는 지역의 날씨를 매일 지자체와 올림픽조직위의 성화 봉송 담당자에게 문자와 메일로 알려주었다. 오늘은 성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얼마나 추운 날씨에 성화를 들고 달리는지 등 여러 관련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 강원





청장님이 “오늘 성화는 어디 있어?”하고 수시로 물어보실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뭐든 내가 관심을 가져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구나~’하고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최 주무관님의 성화 봉송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만난 성화 불꽃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내 옆자리에 계시던 최 주무관님이 옆 부서로 자리를 옮기셨다. 그래도 나는 “의~리~!”를 외치며 언제쯤 어느 곳을 달리게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직원들을 모아 응원에 나섰다. 매서운 한파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망상 해수욕장의 바닷바람은 꽤 매서웠다. 성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채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기상청의 유일한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추위쯤이야 견딜 수 있었다.

성화 봉송 프리젠틱 파트너인 회사들이 많은 응원 바란다며 미리 나눠준 응원 도구(C사의 대형 곰 발바닥 장갑, K사의 작은 북과 모형 성화, S사의 불빛과 소리가 나는 응원봉과 깃발)들은 우리의 응원 욕구를 더욱 부추겼다. 특히, 응원을 간 직원들 모두 아이가 있어서, 집에 가면 응원도구를 선물로 줘야겠다고 기뻐하며 주자들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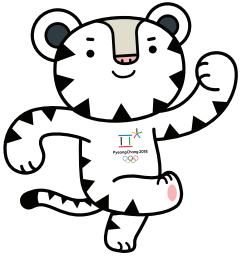
조금의 기다림 끝에, 커다란 환호성과 함께 성화와 주자가 눈앞에 다가왔다! 성화 봉송 전용 복장을 차려입어 더 귀여워진 최 주무관님과 사진을 찍었다. 전 주자가 다음 주자인 최 주무관님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장면을 감격스럽게 지켜보며, 가까이 보는 성화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그사이 벌써 저 멀리 앞까지 달려간 주자를 따라가 사진을 찍어보려 했지만 슬프게도 내 짧은 다리로는 역부족……. 우리의 성화 봉송 응원은 거기까지였다.

성화 불꽃이 남긴 가슴 속 열정

참고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해봤을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 성화 주자가 들고 달린 성화봉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일까? 정답은, ‘본인이 원한다면 거금을 들여 구매할 수 있다’이다. 성화 봉송 주자였던 주무관님은 집안 가보로 남기겠다고 하셨다.

기다림에 비해 짧은 응원이었지만, 그 열기를 가슴 속에 가득 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응원을 간 우리도, 긴장하면서 달리신 최 주무관님도, 오랫동안 아주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올림픽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력의 결실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동계올림픽 기상관측 자원봉사 후기

기상관측 자원봉사자 공윤규



2018년 2월의 평창은 혹독하게 추웠지만, 한편으로는 뜨거웠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약 2만여 명의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은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하나로 뭉쳤다.

두근두근! 강원도 숙소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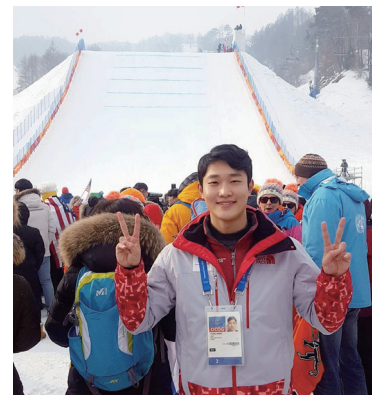
기상관측 자원봉사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큰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기뻐지만 걱정도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에 참여하는 한 달 동안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근심을 가득 품은 채로 숙소로 입주하던 날이 기억난다. 가장 먼저 유니폼을 받았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디자인이 괜찮아서 놀랐다. 숙소와 식사도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훌륭했다. 학업에 대한 걱정은 봉사 시작 일주일 만에 눈 녹듯 사라졌다.

물론 힘들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처음 맞이한 고난은 바로 ‘추위’였다. 출생부터 학교, 군 복무까지 부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나는 강원도의 추위에 허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숨을 쉬는데 콧구멍이 어는 듯한 기분은 강원도에 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특히 아쉬웠던 것은 셔틀버스 운행이었다. 올림픽 조직위에서 숙소와 근무지 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셔틀버스 노선과 수많은 버스 차량을 제공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에 떨며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기도 어려웠다.

기상관측 자원봉사의 시작

근무지인 WIC(Weather Information Center)에 처음 출근한 날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책상 위에는 PC 두 대와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다. 아무런 체계 없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기상지원 업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노트북 세팅, 예보 지원업무에 필요한 것 챙기기, 시정관측에 꼭 필요한 시정도표 만들기, 관측자들 간의 관측 방법 정리와 지점 통일하기 등 하나씩 체계를 세웠다. 주어진 시간이 짧았지만, 숙련된 예보관님들과 작업을 함께 하니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이후, 김남원 예보관님과 태기산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AWS의 위치확인 및 지형을 확인했다. 예보관님은 산악기상과 지형의 형태에 따른 기상변화를 설명해주셨는데, 산악 지역은 기상변화가 빠르고 특이해서 내





가 군 복무 시절 기상관측 업무를 했던 지역과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설면온도, 시정, 하늘 상태를 주로 관측했고, 예보관님들은 그것을 토대로 예보를 결정하였다.

경기 시작 전에는 항상 TCM(Team captain meeting)을 통해서 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 기상팀 또한 경기 진행에 필수인 기상예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번 참석했다. IOC 관계자와 선수 운영팀의 엄숙하고, 때로는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에게 남긴 것

한 달 동안의 자원봉사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공군 기상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기상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지원할 때도 '기상' 직무로 신청했고, 감사하게도 기상청 예보관님들과 일할 기회를 얻었다. 경험이 풍부한 기상 예보관님들과 함께 기상 실무의 기초부터 예보를 결정하는 방식까지 전 과정을 옆에서 보게 되니 흥미로웠다. 예보관님들은 본인이 직접 기상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나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다. 특히, 공상민 예보관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을 제시해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예보관님들은 사촌 형, 삼촌처럼 우리에게 친절히 해주셨다. 업무적인 것부터 삶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아마도 함께 출퇴근하며 대부분의 생활을 공유했기 때문에 더욱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우며 보낸 이 즐거운 추억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누군가 나에게 "왜 자원봉사를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절경을 카메라에 전부 다 담을 수 없듯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흠뻑리는 얼음 알갱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환호성,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운영진들의 노고, 경기의 시작 전후의 풍경, 관객들의 불평 등도 TV 중계만으로는 온전히 다 느낄 수 없다. 오직 그곳에 있어야 겪을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이다. 아직 학생 신분인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해낸 것은 아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일면 직접 참여하여 값진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



면역력 떨어진 봄철, 자가면역질환 주의해야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이 시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감기 환자가 증가한다. 봄철 감기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봄 감기가 겨울 감기보다 더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은 겨울 동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겨울은 활동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체내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활동량을 올리면 몸에 부담이 간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여 감기에 걸리기 쉽다. 자칫하면 2차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은 1년 중 가장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자가면역질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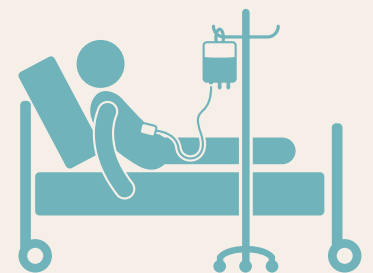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은 자신의 신체조직에 다른 이물이 체내에 침입할 경우, 그것에 대한 항체가 생성하는 방어기구를 말한다. 이 항체를 생성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자가면역질환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갑상샘염이다. 자기의 갑상샘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갑상샘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빈혈도 해당된다. 만성관절류머티즘 역시 자기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범은 나트륨 과다 섭취

미국 예일 대학과 독일 에어랑겐 뉘른베르크 대학 연구진은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네이처’를 통해 자가면역질환의 주범이 나트륨 과다 섭취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잘 낮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 또한 자가면역질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자가항체가 있는 환자의 그룹에서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으며, 치료 기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

자가면역질환의 특징

자가면역질환은 자기항원에 대한 항체, 즉 자가항체나 자기조직반응성 면역 담당 세포인 림프구의 존재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정 장기에 국한된 장기특이적 자가면역 병이 있는가 하면, 전신에 나타나는 전신성 자가면역병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자가항체에 의해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위벽 세포, 혈소판, 적혈구 등에 대해 직접 나타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자가항체와 질병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유전적 원인이나 환경인자 등 많은 인자가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 사이언스타임즈

식물 뿌리의 놀라운 전략

지난 4억 년 동안 식물이 지구에 퍼져 번성하게 된 것은, '땅 위의 줄기보다 땅속 뿌리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됐다.

식물 종은 영양가가 풍부한 열대지방에서 시작해 남쪽과 북쪽으로 확산되면서 미세한 뿌리 끝이 점점 좁아지고 잔뿌리가 퍼져 영양소가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프린스턴대와 중국 과학원(CAS) 연구진의 협동연구로 수행된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발표됐다.

논문 교신저자인 라스 헤딘(Lars Hedin) 프린스턴대 생태학 및 진화생물학 주임교수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광합성을 위해 햇빛을 흡수하는 나뭇잎의 특성과 효율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는 식물이 진화하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식물들이 생존하고 퍼져가는 감춰진 지하의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모델을 구축하고 생물권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적 규칙이 필수적일 때 식물 진화에 대한 지구적 견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사막과 초원, 지중해, 아한대, 온대, 아열대 및 열대지방 등의 7개 기후 지역 생물군에서 수집한 369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고유 식물 뿌리 데이터베이스를 2년 동안 조사했다. 이 데이터들은 논문 공동 교신저자인 고(故) 달리 구오(Dai Guo)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연자원 연구소 교수실에서 10년 동안 수집한 것이다.

루 연구원은 "지하의 식물 생태는 데이터가 부족해 연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식물 뿌리의 진화를 탐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레기처 교수는 "흥미롭게도 식물의 뿌리가 자연 서식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이제는 잎과 뿌리가 서로 다른 진화적 선택 압력에 적응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뿌리 형태와 기능이 지구의 거대한 생물학적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식물의 성공을 이끌어왔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아이디어와 현장연구 결합한 노작

헤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그동안 프린스턴대에서 탐구해 온 아이디어 즉, 식물은 자신의 환경 특성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스스로 환경을 형성해 나간다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진화론적 질문들을 식물의 관점에서 고유의 글로벌 데이터 세트로 가져와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했다"며, "이번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년 동안의 고된 현장 연구와 결합해 탄생시킨 커다란 노작"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사이언스타임즈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와 함께 해요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0분경 '쿵' 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이 흔들렸다. 경주에서 1978년 지진 계측 이후 역대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대구·울산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동을 느껴 대피할 정도로 지진은 강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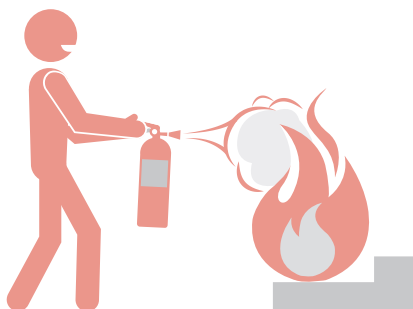
지하철안전 체험



지진대피 체험



교구만들기 체험



지진 안전지대를 위한 첫걸음

당시, 본가가 부산인 나는 휴무일을 맞아 집에서 가족들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부리나케 밖으로 대피했다. 5천만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9.12지진 발생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9.12 경주지진 발생 이후, 대국민 대상의 지진 대피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우리 대구기상지청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의 시민안전테마파크와 협업하여, 2017년부터 지진 이론 및 체험 통합 커리큘럼의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게 되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 2. 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설립된 곳으로, 지하철 안전, 지진 안전, 생활 안전, 심폐소생술, 옥내 소화전 등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를 방지하는 지역 안전교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진 안전역량 강화교육

지진 안전역량 강화교육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 4~11월까지 총 7회를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



이영미
대구기상지청



소화기 체험

론 수업과 체험 수업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론 수업에서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대피요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체험 수업에서는 지진 교구 만들기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관람,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의 지진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를, 아이들은 “우와~”하는 탄성과 함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중하며 바라본다. 그럴 때면 나는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낀다.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로 이것저것 만지고 놀러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런 체험 기회는 참 소중한 것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더욱 많은 아이들이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기상과학관 관람이 끝나면 아이들은 임차버스를 타고 팔공산자락에 있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로 40분가량 이동한다. 여기서부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협업의 시간이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2팀으로 나뉘어 강사님의 인솔하에 안전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 나도 작년 첫 교육 때 학생들이 하는 체험을 똑같이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체험이 흥미진진해서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신나게 참여한 기억이 난다.

재난 상황, 모의 체험으로 대비하자

체험은 ‘지진 안전 체험’과 ‘맞춤형 안전 체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진 안전 체험은 지진 대피 요령에 관해 설명을 듣고, 모의 지진 상황을 만들어주는 지진 체험장에 들어가 지진을 몸소 느끼고 대피하는 체험이다. 규모 6정도의 진동을 체험장에 발생시키면 아이들이 일제히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려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게 된다. 체험장 안에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실제 지진이 발생해도 잘 대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줄 만큼 모의 지진 상황에 침착하게 테이블 밑으로 대피했다.

지진 안전 체험 외에도 생활 안전, 4D영상관, 옥내소화전, 완강기, 모노레일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 체험을 차례대로 경험하게 된다. 이로써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이 끝나면,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도 끝이 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함께 해요

2017년 교육에 참여했던 약 3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89%가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료 소감으로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진과 대응 요령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많았고, 지진 교구 만들기에서 다른 흥미 있는 활동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도 있었다.

2018년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방향과 내용을 개선해서 지진 안전역량 교육을 확대 운영하려 한다. 나의 작은 노력이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구기상지청 최고~!” 소리를 듣는 그 날까지 파이팅을 외쳐본다! 🍀

국제협력을 통한 위성기상 기술력 향상

국가기상위성센터와 유럽기상위성센터는 2006년 양자 협력 체결 이후, 기상위성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구름, 바람과 관련된 기상 현상을 기상위성으로 얼마나 잘 관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12월, 비록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풀리지 않아 어려웠던 숙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다.

유럽의 눈! 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

유럽기상위성센터가 위치한 독일의 다름슈타트는 인구 약 15만 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공과대학 3개와 유럽우주국 등 유명한 연구소들이 위치한 과학 도시이다. 1986년에 설립한 유럽기상위성센터는 유럽연합의 국제공동 정부조직으로 기상 및 기후, 환경 등과 관련된 위성업무를 담당하며, 약 30여 개 회원국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제2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3기(Meteosat-8, 9, 10)와 극궤도 기상위성 5기(Metop-A/B, Jason-2/3, Sentinel-3A)를 운영하며, 세계 각 나라와 위성기상 기술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Meteosat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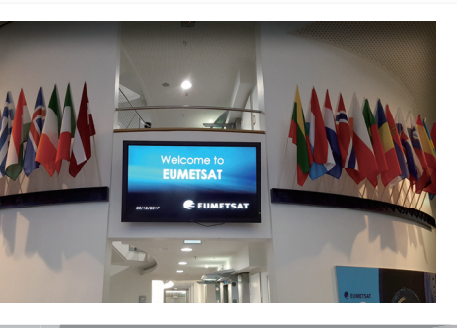
극궤도 기상위성 Metop 모형



이병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산출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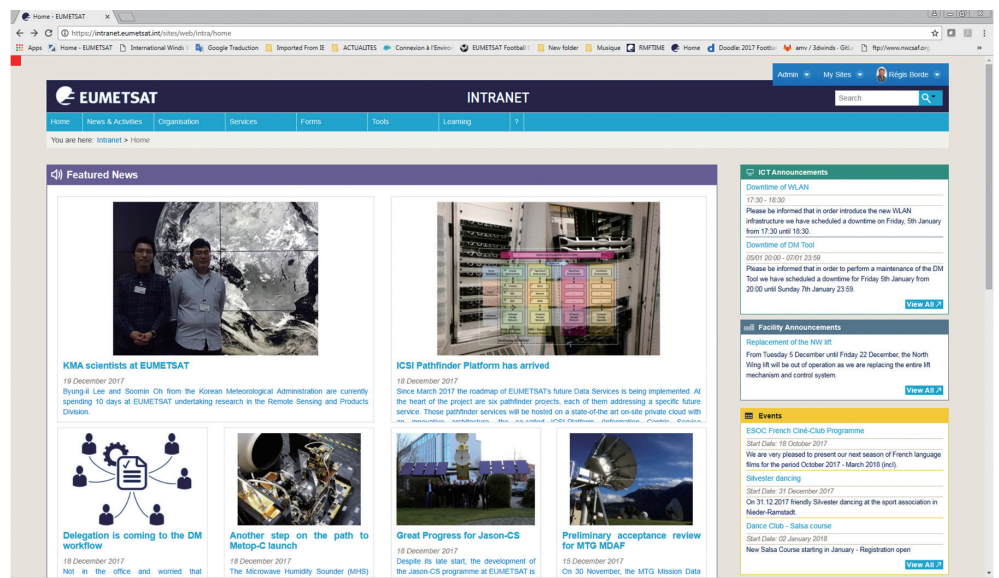
기상위성은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산악, 바다 등 지역의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상,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차세대 기상위성의 산출물을 제공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A호의 알고리즘 및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기상위성센터 현관

이번 방문은 두 기관이 개발한 바람, 구름 산출물을 상호 비교하고, 그 결과를 유럽기상위성센터의 전문가와 토론하며 산출물의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산출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지수를 생산하는 과정의 오류를 개선한 것은 우리 산출물의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랜 기간 한 가지 업무에 종사한 유럽기상위성센터의 전문가들이 우리 산출물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 덕분에 우리 또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럽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2A호와 유사한 제3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2021년 발사 예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자료를 활용한 기상산출물의 정확도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이번 협력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그들은 우리의 방문 목적 등을 유럽기상위성센터 인트라넷에 소개하기까지 하였다.



유럽기상위성센터 인트라넷 소개 화면(KMA scientists at EUMETSAT)

위성 전문가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

유럽기상위성센터에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다양한 유럽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동료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전문가들임에도 항상 기본을 생각하고 '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빨리! 빨리!'를 원하는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비록 그들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의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유럽기상위성센터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우리와의 기술력 차이는 분명한 듯 보였다. 하지만 깊이 고민하며 불철주야 열심히 업무를 해내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머지않아 우리도 기상위성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꿈에서도 일기도가 보여요

나와 동기들은 2017년 6월에 9급 공무원 신규자로 합격하여, 10월부터 6개월간 실무 수습 근무를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불안정한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기뻐다.



박민
예보분석팀

첫걸음을 예보분석팀에서

사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예보 업무가 하고 싶어 기상청 시험을 준비해서 예보 분석팀이라는 이름만 보고 지원해서 오게 됐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다. 대기과학을 전공했음에도 기억에 남은 게 많이 없는 듯 느껴졌다.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수습 시작 첫 주부터 우리는 정신없이 배우기 시작했다.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곤 할 수 없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론으로만 배운 것과 실제 예보 일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소위 '멘붕'에 빠져 있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때론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브리핑 준비를 하는 팀원분들을 돕는 게 주된 일이었다. 5~10년 동안의 과거 일기도를 뒤져 가며 유사 사례를 찾고, 때론 야근도 해가며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덕분에 나는 일을 하며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더 발전하는 나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올림픽 때마다 경기를 챙겨 봤지만 직접 가서 관람한 적은 없었다. 나와는 다소 먼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보분석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더 이상 먼일이 아니게 되었다. 올림픽 예보관의 평창 파견을 앞두고 그곳으로 함께 워크숍을 다녀오게 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직접 보게 된 나는 예보에 대해 고민하시는 과장님과 주무관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도 꽤 가까운 일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올해 2월, 팀원 8명 중 3명이 평창으로 파견을 가시게 되었다. 팀에서 같이 일하던 동기 세 명도 현업으로 지원을 가면서 실무 수습자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원래 네 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다만, 가장 걱정이 된 건 기상캐스터나 기자 등

언론으로부터의 전화에 응대하는 일이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잘못된 기사가 나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긴장이 됐다. 하지만 2주 넘게 받다 보니,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덜 긴장되었고 필요한 정보도 전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전달할 수 있었다.

벌써 4개월, 더 나은 2개월

벌써 4개월이 지나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이 짧은 글에는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 이제는 그래픽캐스트를 이용해 모식도를 그리고, COMIS나 선진예보 시스템을 이용해 유사사례를 찾는 등 업무가 조금은 익숙해졌다. 어느 날은 일기도를 보며 유사사례를 찾는 꿈을 꾸기도 했다.

정말로 내가 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하고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는다. 남은 기간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예보분석팀에서 보낸 수습 기간은, 기상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나의 긴 공직생활 동안 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를 알게 됐다. 하지만 그게 바로 첫걸음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일.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수습이 끝난 후에도 이 밑거름 위에 공부와 경험을 더해가며 더욱 발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





끝난 사람



미래를 알면 행복할까? 설 연휴를 지나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미래라는 것

가끔 스토리 창작 관련 강의를 하면 받게 되는 질문 중에도 꼭 이런 질문이 하나씩 있다. “이 바닥(스토리 창작업)은 버티면 된다고들 하던데, 정말로 버티면 성공할 수 있나요?” 질문자도 오죽 답 답했으면 저런 질문을 했겠냐만, 버티고 버텨서 미래에 확실히 성공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이 바닥에서 글을 쓰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누군가는 도중에 포기한다. 계속 글을 쓴다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작가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평생을 무명작가로 살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당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미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직업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직업군이 존재한다. 점쟁이들이다. 이들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영적인 힘을 이용해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 사람들은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묻는다. 이 상반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싶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유명한 점쟁이들은 1년 내내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쟁이들 외에 미래를 알려주는 직업이 있다. 바로 일기 예보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일기 예보는 놀라운 직업 영역이다. 내가 내일 날씨를 알려줄 테니 당신은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지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앞서 언급했던 질문을 한 학생에게, 네가 내일도 이 바닥(스토리 창작업)에서 살아남고 싶



정이안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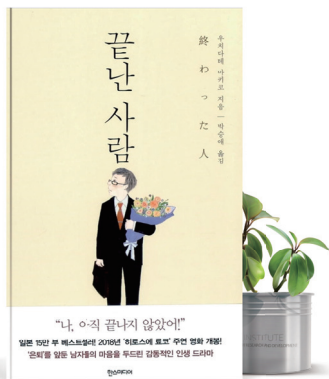


다면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핑계야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 나는 그런 말을 하기엔 부족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연초에 TV 속 일기 예보를 보며 내가 그만 시무룩해지고 말았던 이유다.

끝난 사람

얼마 전에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일본의 정년퇴임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로, 이 사회에서 '끝난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60대에 대한 심리 묘사가 워낙 좋아 이 소설을 읽으며 나도 60대쯤엔 '끝난 사람'이 되고 마는 걸까, 잠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발전했다. 혹시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은 내 인생에 일기 예보 같은 것은 아닐까? 내일 태풍이 올 테니 준비를 잘 하라고 일러주는 기상 캐스터처럼, 60대의 나는 끝난 사람이 되고 말 테니 오늘부터 준비를 잘 하라고 일러주는 일기 예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미래를 알려주는 인생의 일기 예보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봉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것들 말이다. 일기 예보를 잘 챙겨보는 사람들이 내일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듯이 이러한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내일 큰 봉변을 당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생각도 든다. 아무리 내가 우산을 잘 챙긴다 하더라도 비에 맞을 일이 과연 한 번도 없을까? 집에서 잘 챙겨 나왔어도 지하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면 나는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영락없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혹은 비를 맞고 있는 아이나 노약자가 보이면 나는 기꺼이 우산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내가 우산을 챙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종종 비에 젖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산을 챙기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닐까? 가끔 우산이 없을 땐 시원하게 비를 맞으면 된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는 언제고 끝난 사람이 아닌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끝난 사람이 되고 말고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에는 우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 법이다.



유달리 추웠던 겨울이 거짓말처럼 지나간다. 곧 봄이 온다. 모두들 새로운 계절,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



5년 연속 수많은 대학생, 청강생들을 매혹시킨 명강의!

아직 꽃피지 못한 창춘, 그러나 '라틴어 수업'에서 배운 것은 '꽃'이 아니라 그근본이 되는 '뿌리'였다. - 제자 김서연

흐름출판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과 함께 한 엄마의 일기

저자 한동일 | 흐름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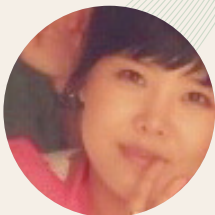
2017년 4월 19일. 나도 드디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

‘결혼은 안 해도 자식은 낳고 싶다.’ 조금 엉뚱하지만, 결혼 전부터 줄곧 해온 생각이다. 그만큼 나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과연 내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자라면서 가장 싫었던, 남들과의 비교는 절대로 내 아이에게 하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다.

엄마의 다짐이 시험에 들다

하지만 우리 딸내미는 마치 뱃속에서부터 이런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엄마를 테스트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를 시험대에 올릴 때가 많았다. 잠투정이 심하고 눕히기만 하면 울어서, 신생아 때는 거의 온종일 곧추세워 안고 있다시피 했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유두 혼란이 와 젖 한 번 물리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백일의 기적을 그토록 기다리며 버텼지만 백일의 ‘기적’은 커녕 백일의 ‘기절’이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내 딸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조카 두 명은 잠도 잘 자고, 젖병이든 엄마 젖이든 상관없이 주는 대로 잘 빨고, 이유식도 주는 대로 척척 잘 받아먹는 순둥이들이다. 신기할 노릇이다. “별이랑 은성이는 이렇다는데, 넌 대체 왜 그러니?” 지난 10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다. 한번은 아이들의 발달속도까지도 열심히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욕심을 부렸다. 우리 딸의 발달속도가 결코 늦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난 조카가 벌써 걸음마를 시작한 걸 보고 ‘우리 딸은 아직 혼자 서지 못 한다’며 주저앉으려는 아이를 자꾸 일으켜 세워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는 나를 보며 어느 순간 아차 싶었다.



김서연
수도권기상청

Latin Alphabet

Bene

라틴어 수업으로 육아를 배우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은 이런 나에게 출산 전 다짐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책이다. 외국어라면 진저리를 내는 나에게, 지금은 사용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렵다는 라틴어와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신기해서 관심이 갔다. 무엇보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이 수식어가 마음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육아서적을 제외하면 출산 후 처음 읽은 일반 도서이지만, 나에게 그 어떤 육아서적보다도 육아의 방향성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다. 자라나는 내 딸과 함께 평생 두고두고 읽으면, 아직 한없이 부족한 나도 정말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인생 선배이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비록 책 제목은 라틴어 수업이지만, 라틴어를 직접 배우기보다는 라틴어 격언을 화두로 삶의 교훈을 깨닫고, 인생살이 공부를 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책이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책에서 소개되는 ‘숨마 쿼 라우데(Summa cum laude 최우등), 마그나 쿼 라우데(Magna cum laude 우수), 쿼 라우데(Cum laude 우등), 베네(Bene 좋음/잘했음)’는 대부분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유럽대학의 라틴어로 된 성적 평가 표현이다. 평가언어가 모두 긍정적이다. 철저한 비교를 통해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는 한국의 상대평가 시스템과는 달리 자신의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전보다’ 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다.

태어나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던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며 돌아다니더니 어느덧 혼자 앉고 기어 다니며 이제는 잡고 서기까지 한다. 아직 말은 못 해도 말귀는 알아듣는 듯 시키는 것을 곧잘 해내고, 나에게 다가와 장난도 걸 줄 안다. 분명 우리 아이는 엄청난 발전을 하는 중인데, 이 못난 엄마는 내 아이가 남보다 못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아도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보잘 것없게 만들기 일쑤인데, 엄마인 나라도 늘 내 딸에게 ‘숨마 쿼 라우데’라는 존재감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비록 사회는 내 딸을 ‘잘한다/보통이다/못한다’로 구분 짓고 단정적으로 평가할지라도, 집에서만큼은 위에서 언급한 라틴어 성적 표현처럼 ‘잘한다’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겠다. 내 딸은 그 어떤 누가 뭐래도 나에게겐 ‘숨마 쿼 라우데’니까. 



15시간의 비행시간을 잊게 한 칸쿤과 라스베이거스 여행



결혼 휴가 기간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근무기간에 휴가가 5일이나 주어질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가장 멀고 남들에게 생소한 여행지를 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적인 조건에 부딪혀 적당히 멀고, 적당히 신혼여행다운 '칸쿤'과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오게 되었다.



김인선
지진화산감시과

반가워, 칸쿤!

신혼여행 출발일 아침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다행히 눈이 금방 그치긴 했지만, 항공기의 제설 작업 때문에 출발이 4시간이나 지연되고 말았다. 최종 목적지인 멕시코 칸쿤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델러스에서 경유를 해야 했는데, 당연히 환승할 항공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당일 비행기는 좌석이 모두 차서 어쩔 수 없이 칸쿤 1박을 포기하고 델러스에서 1박을 했다.

델러스의 호텔에서 쉬 후, 다음날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칸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칸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우와!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델러스에 도착했을 때도 외국으로 나왔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진짜 여행지대! 여행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한 한국의 여름 기온인데도 전혀 덥지가 않았다. 햇빛은 강렬한데 땀이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상쾌했다. 열은 사파이어색의 바다와 싱그러운 야자수가 있는 이곳은 그냥 천국이였다!

호텔에서 보낸 신나는 하루

호텔에 도착하니 더 신났다. 우리는 체크인을 한 후, 배고픔과 피곤함도 잊고 곧바로 수영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올인 클루시브' 라고 해서 호텔에 묵는 동안 호텔 안의 모든 음료와 음식이 무제한 무료였다. (심지어 호텔 룸서비스도 무료!)

우리는 신나게 놀다가 배가 고파져서 호텔 안의 여러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선택해 들어갔다. 이것을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칸쿤에서 첫 끼니를 먹으며 감동의 눈물이 나올 뻔했다. 심지어 멕시코인 직원들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생김새도 뽕망뽕망해 천사처럼 귀여웠다. 그렇게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던 저녁 식사 후에는, 무료 칵테일을 마시면서 다음날 여행 계획을 짰다. 1박이 날아가 버린 탓에 일정이 몹시 빠듯해 아쉽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1초라도 더 즐겨야 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섬

다음 날은 배를 타고 여인의 섬으로 가는 도중에 스노클링도 했다. 다음에 또 칸쿤에 오게 된다면 스노클링은 빼고 여인의 섬으로만 가는 코스를 선택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인의 섬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는데 관광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기 때문이다. 길게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과 맑은 섬이라고 하여 여인의 섬이라 불리는데 선착장 반대편 해안가에서 보는 모습이, 내가 이제껏 살면서 본 바닷가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사람도 많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곳이라서 멕시코 전통적인 모습에 섬마을의 분위기가 더해져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국적인 느낌이 정말 좋았다.



흥이 넘치는 나라, 멕시코

다음 날은 호텔 근처에서 쉬기로 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땅에서 멕시코 특유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다. 우리는 호텔 밖으로 나가 멕시코의 어느 거리를 걸었다. 칸쿤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다. 섬 구조나 길이 단순해 다른 수단을 이용할 필요 없이 버스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항상 흥이 넘치는 멕시코답게 버스 안에는 클럽 음악을 광광 틀어놓는다. 버스의 조명 역시 현란하게 클럽처럼 꾸며놓았다. 버스와 거리에서 들리는 스페인어가 너무 좋다. 스페인어는 자연과 어우러진 화려함과 흥이 넘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언어이다.



라스베이거스의 밤

그렇게 칸쿤에서의 3박 일정을 마치고 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12월 23일,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였다. 듣던 대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화려했고, 사람들도 신이 나 있었다. 불빛은 새벽 4시가 되어도 꺼지지 않았다. 새벽이 아니라 그저 저녁 시간대 같았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의 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아쉬워서 엔틸롭 캐년과 홀슈밴드, 그랜드 캐년을 하루 만에 다녀왔다. 그리고 이날 무리를 한 탓에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갈 땐 좋았는데, 신혼여행 후유증은 생각하지 못했다. 한동안 신혼여행의 그리움으로 현실 적응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녀온 여행은 나의 몸과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좋았던 순간을 추억하고, 다음 여행을 기약하면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여행이 주는 선물 아닐까 싶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그나마 여운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쓰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 아련하다. 📖

캄보디아, 때때로 스콜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캄보디아’는 어렴풋이 이름만 들었던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불과했다. 나는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잡지의 기자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해외 봉사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11월의 캄보디아로 9박 10일의 단기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나게 되었다.



박해울
SF작가

스콜이 내리는 나라라고?

우리가 하게 될 일은 수도 프놈펜에서 44km가량 떨어진 옛 수도 ‘우동’지역의 한 마을에 방치되어있는 정미소 건물을 보수하여 마을 행사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짝기는 하지만 첫 해외 체류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국적인 풍경, 현지의 낯선 음식, 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나의 작은 힘이 마을 사람들을 기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출발이 확정된 날부터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열대몬순기후로, 때때로 스콜이 내린다고 했다. 스콜은 적도 부근의 열대 지방에서 한낮에 강한 일사로 인한 대기의 상승 작용 때문에 내리는 소낙비였다. 책에서만 보던 스콜이라니! 스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사람, 낯선 나라

그러나 캄보디아의 현지 마을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봉사를 함께 할 봉사 단원들과 만나는 일이었다. 2박 3일의 사전 국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보니, 봉사 단원은 전국에서 모인 10대와 20대들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28살의 대학생까지 다양했다.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였지만 어색했고,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서먹했다. 봉사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친해져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해외 봉사에 뜻이 있는 이들이었지만 사는 지역도, 생각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피부에 처음 느껴보는 진득한 습기가 느껴졌다. 새벽부터 도로를 짝 메우는 오토바이 무리와 노상에서 쌀국수를 먹는 사람들, 처음 맛보는 음식, 과일의 모양과 맛, 길옆 비스듬히 누운 흰 소와 떠돌이 개들이 보였다.

시장에서 맞이하게 된 뜻밖의 상황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해외봉사단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봉사 단원들과 현지인이 힘을 합쳐 보람 있는 일을 일구어 내는 모습일지 모른다. 거기에 단원들 사이의 어색함에 대한 이야



기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낯선 지역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캄보디아에서의 하루와 이틀이 쉬이 지나버렸다.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누어본 사람들 몇몇이 친해 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절친한 상태는 아니었다. 앞으로 같이 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뿐만이 아니라 단원들 모두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3일째가 되던 날, 우리에게 큰 계기가 찾아왔다.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벽화를 그리고 해질 녘에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던 중이었다. 시장에 잠시 정착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구경은 물론이고 생필품을 살 좋은 기회였다. 다들 버스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졌을 때였다. 갑자기 스콜이 내렸다. 한두 방울씩 내리다가 급기야는 시원하게 쏟아 쏟아지는 비에 모두 당황했다. 나는 허둥거리면서 이것이 말로만 듣던 스콜인가 싶었다. 모두 두리번거리며 피할 곳을 찾았다. 골목골목마다 단원들이 뛰어 나왔다. 가까스로 처마 밑으로 피한 이들은 빗속에서 서두르는 단원들에게 손짓하며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어떤 이는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바람막이를 풀어, 아직 서먹한 단원들과 나누어 쓰기도 했다. 한 번도 말을 나누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우와, 이게 스콜이야?”하며 하하 웃고 버스로 내달렸다.

마음을 움직인 날씨

시장 구경은 매우 짧게 끝나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였다. 서로가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을 보며 신나게 웃었다. 구경을 제대로 한 사람도, 생필품을 사 온 사람도 거의 없었다. 스콜을 맞았던 순간을 이야기하던 우리는 한참 이야기꽃이 핀 후에 우리가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옥수수를 사는 데 성공한 모양인지 두세 동강으로 찢개진 옥수수가 하나씩 손에 쥐어졌다. 옥수수는 참 달고 따뜻했다. 스콜은 곧 그쳤다. 비로소 나는 그 자리가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봉사 단원들은 친해졌고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날의 스콜을 잊을 수 없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던 순간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언론브리핑 (2월 7일)
기상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 날씨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강원도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실시했다.



2018 봄철 기상전망 브리핑 (2월 23일)
기상청은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 봄철 기상전망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Photo News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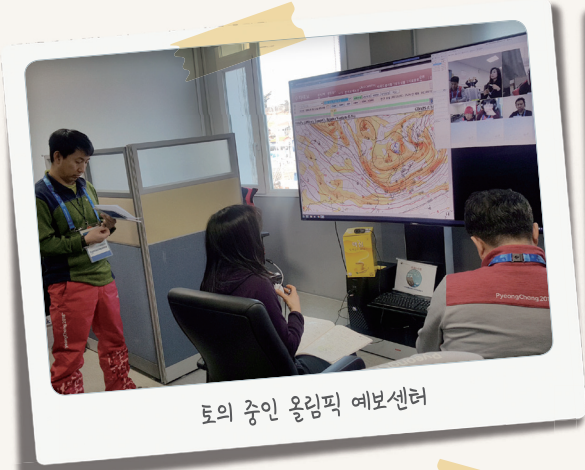


기상청장,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2월 8일)
남재철 기상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을 나누고, 전통시장을 찾아가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5차 한-베트남 기상협력회의 개최 (3월 2일)
기상청은 베트남에서 열린 제50차 태풍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제5차 한-베트남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로는 ODA프로젝트 개발, 지구대기감시 활동, 지방기상청간 협력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스케치



토의 중인 올림픽 예보센터



용평 알파인 경기 TCM 브리핑



올림픽 기상지원 고층 관측 중



휘닉스 파크 모글 경기 TCM 기상 브리핑



폐막식 날씨예보를 점검하는 남재철 기상청장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예보관 기념 사진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3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뽐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4월호의 단어는 <설렘>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도전>

우정렬, 부산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 하지 않고, 내가 꿈꾸었던 바를 과감히 던지는 것

최영지, 대구

우리가 꿈꾸어 오던 삶을 과감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서정세, 양산

갑갑한 맘을 후련한 맘으로 만드는 짜릿한 승부수

이귀숙, 부산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이나 열쇠를 찾기 위해 부딪혀 보는 시도

최문석, 남원

포기하는 시작은 있어도, 실패 없는 도전은 없다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대구기상지청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2017년부터 협업하여 운영 중인 지진 이론 및 체험 프로그램의 이름은?

- ①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 ② 지진 안전 강화 교육
③ 재난 안전역량 강화 교육 ④ 재난 체험 안전 교육

1. ② 국립대구기상과학관
2. ② 잠

이상근(울산), 허세미(영월)
박태규(인천), 서지현(인천)
전소희(구로)

2. 유럽대학에서 사용하는 라틴어로 된 성적 평가의 한 표현으로 '최우등'을 뜻하는 말은?

- ① 베네 ② 콤 라우데 ③ 마그나 콤 라우데 ④ 숨마 콤 라우데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명예 퇴직	'18. 2. 28.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권혁신
	'18. 2. 28.	강원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육명렬
	'18. 2. 28.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원장)	조천호
파견	'18.2.19.~'19.2.18.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동연
	'18.2.19.~'19.2.18.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부이사관	권오웅
	'18.2.20.~'19.2.19.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기술서기관	박경희
파견 연장	'18.3.1.~'18.5.3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상사무관	양석중
	'18.3.1.~'18.5.3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상사무관	심안섭

시끌벅적 하늘사랑

최문석 남원

하늘사랑 2월호 '지구온난화의 역설? 올 겨울이 추운 이유' 기사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춥다 보니, 앞으로 매해 겨울마다 한파가 지속될까봐 걱정스러웠는데 그 원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파의 원인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빙의 면적이 줄면서 북극해의 수분 증발이 심해져 시베리아의 적설량이 증가한 것'이라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해가 갈수록 봄, 가을이 줄어들고 여름, 겨울이 길어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3월이네요. 꽃 피고 생동감 넘치는 화창한 봄날을 어서 만날 수 있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우정렬 부산

기상청의 올해 주요 정책인 '2018 기상정책, 달라지는 기상 서비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생태계가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을 필요에 따라 제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재난과 기후변동에 대비해 맞춤형 기상 및 지진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상청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보다 한층 정확하고 객관적인 각종 기상 서비스가 다방면에서 활용되길 기대하며,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박태규 인천

하늘사랑 2월호 열린마당에 실린 '뚜뚜에게 보내는 한 땀 한 땀 사랑모자'의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한 유지영 씨의 소식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나눔이란, 작은 것들이 십시일반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어서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한 땀씩 정성껏 뜨개질한 모자가 세상에 갓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모자가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아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지하철 이동 시에 틈틈이 할 수 있고, 기부까지 할 수 있으니 더없이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사랑모자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뿌듯하네요. 이 글을 읽은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울산

맹학교로 첫 봉사를 다녀오신 서가영 씨의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 장애인 아이가 있는 부모의 마음도 십분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을 직접 보지 않아도 햇빛이 째짤한지, 구름이 많은지 알 수 있다'라는 시각장애인의 말처럼, 그들 또한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눈으로만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동심의 마음을 가진 장애인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아껴주는 서가영 씨의 따뜻한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으며 인연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지원 속에서 큰 걱정 없이 치료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수의 봄

고요한 물 위로
작은 발이 침범 뚫어든다

무용수가 꿈인 소녀는
치마를 휘날리며 춤을 춘다

호수는 조금 부끄럽다

좋아하는 마음을 감춰보지만
꽃이 피어버렸다

소녀는 모르고 호수는 안다

이곳에
봄이 녹아들었다

글 : 조희애
사진 : 김태용, <우련(우중수련)>, 2013년 기상기후사진전 최우수상

2018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 기간** 2018.2.5.(월)~4.13.(금), 68일간
- 진단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 진단주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
- 주요활동**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언



안전신고·제언 참여 요령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고,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 <<https://www.safetyreport.go.kr>>에서 자유롭게 제언해 주세요!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